

북한이 최근의 서해사태를 빌미로 22일 어쩔수 없이 열린 베이징차관급회담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등 남북간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객을 억류하고, 이산가족상봉문제에 대한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남북간의 대화가 더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대화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첫번째 의사소통수단이다. 남북간의 대화뿐 아니라 부부, 친구,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대화 없이는 관계유지가 제대로 되기 힘들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대화에 익숙하지 못해, 이론인데 피상되는 많은 문제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 앞에 닥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자세로 대화해야 하는지 부처님 말씀을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 거친 말을 멀리 함으로써 저를 해치고 남을 해쳐서 피차 함께 해임은 일을 면하고, 좋은 말을 익힘으로써 저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해서 남과 내가 널리 이롭도록 해야한다. <대아미타경>
 ■ 승단을 화목하게 이끌어 가는데 긴요한 일이 여섯가지 있다. 첫째 성실한 말, 둘째 성실하고 친절한 행위, 셋째 성실성과 동정심, 넷째 공유재산을 평등하게 이용하기, 다섯째 순결한 마음, 여섯째 모든 계를 지키는 것이다. <팔리문법구>
 ■ 부처님께서 사위신 기인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각각의 말하리니 명심하고 잘 들어라. 착하게 말하는 것이 제일이니 이는"

음으로써 얻게 된다. 많이 듣는다는 것은 뜻을 잘 알라는 것이요, 말을 잘 하라는 것은 아니다. <방등경>
 ■ 어리석은 사람이 어진 사람을 잘 보고 험뜯더라도, 어진 사람으로선 끝내 성내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 험뜯음과 꾸짖음을 참아가면서 수순하는 말을 해야 한다. <대집업초경>
 ■ 온갖 죄는 진리 아닌 것을 말하는 입과, 내세를 배척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팔리문법구>
 ■ 부처님께서 사위신 기인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각각의 말하리니 명심하고 잘 들어라. 착하게 말하는 것이 제일이니 이는"

곳 성인의 말로다. 험담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거짓 없이 진실한 말이 세번째이며, 법답지 않음을 피하는 법다운 말이 네번째니라."이 말씀을 듣고 바기사가 일어나 계승으로 찬탄하였다. "말씀마다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는 것이 착한 말이라 할 것이요, 부드럽고 사랑스런 말로 남을 기쁘게 하며 모든 허물 짓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말하는 것, 반드시 기쁨을 얻고 열반에 나아가리라. 착한 말씀 찬탄함은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요, 진리를 진실대로 말하는 것 최상이다." <별역잡아함경>

■ 거친말을 해서는 안된다. 말할 때에는 남도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악이 가면 화가 오게 마련이니, 폭력의 보배를 그 몸에 받아야 하리라. 좋은 말을 하되 종(鍾)이나 경쇠를 고요히 두들기듯 하라. 몸에 시비가 없으면, 미혹의 세계에서 벗어나 편안할 수 있으리라. <법구경>
 ■ 차라리 진실한 말을 해서 적을 만들지않고, 비위 맞추는 말을 해서 친구를 만들지말라. 차라리 바른 가르침을 설하고 지옥에 떨어질지않고, 그릇된 가르침을 설하고 천상에 태어날지말라. <보살본연경>
 ■ 만일 어떤 비구가 설법할 때 그

중에 어떤 비구가 있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자. '자기가 말한 글귀는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그 뜻은 바르다'고 비구는 그 말을 듣거든 옳다고 말하지 말고 그르다고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마땅히 그 비구에게 말하라. '어떤가 비구여, 내 글귀는 이렇고 너의 글귀는 이렇하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 만일 그 비구가 곧 대답하되 '내 글귀는 이렇하고 네 글귀는 이렇하다.네 글귀가 낫다.' 그 비구는 이렇게 말할때 비구는 또한 말하기를 '이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그르다고도 할 수 없다.' 하고, 마땅히 그 비구를 충고하고 꾸짖어 그치게 하고 마땅히 함께 연구하라. 이렇게 다 함께 화합할 것이요, 서로 싸움질을 하지 말라. 여래의 정법 가운데서 마땅히 자기 등불로 유쾌한 인락을 얻어야 하고 인락을 얻어 마쳐야 한다. <칭정경>

새천년 평화 이끌 종교의 힘은 '관용'

국민의식개혁 공생윤리 회복

주제발표 김용정(동국대 명예교수·철학)

경제발전이 힘입어 개인의 소득이 상승하였으나, 민부의 격차로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급격한 경제발전에 황금만능주의와 향락주의를 만연시켜 인간의 도덕성을 타락시키고, 수다한 범죄가 활개를 치게 되었다. 또한 대량소비로 대량폐기물이 쏟아져 나와 역시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것은 전 국민의 자각과 정의의 실천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여기에 바로 우리 종교가 앞장서서 범죄를 물리치고 환경정화에 솔선수범하는 청병역할을 해야 할 당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다원화 사회에 있어서의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문화가 물결만능주의의 폐락주의에 영합하여 극단적 이기주의의 경향을 띠고 있어 여러가지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의식개혁과 근본적 자각이 없는 지금의 복잡다단한 사회를 정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종교가 해야 할 일은 전 국민의 의식개혁운동의 선봉에 서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은 먼저 타자에 대한 근본자각이 있을 연후에 가능할 것이다. 진정한 초월적 종교체험이 있는 곳에 진정한 인간의 의식개혁이 있게 될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내가 타자와의 공생의 윤리를 회복하려면 마치 빛을 갈아야 할 것 같은 일종의 책임의식을 가질 때 가능하다. 불살생의 계율을 첫째로 내세우는 불교의 최고의 덕목은 자비이다. 자비는 붓다 이래 불교의 중심 덕목이다. 자비란 말은 베풀어 이 익과 인락을 주는 대신에 불이익과 괴로움을 제거해 주려는 근본적인 도덕의지와 종교적인 자비를 나타내는 복합명사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경제적 부의 문제가 인간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고도의 산업화 내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평등과 경제적 소유의 배분의 문제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공동체 감정을 고양하고 배분의 정당성 부여와 각종의 갈등 내지 불만 해소의 하위기능까지 분담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종교는 서로 다르더라도 인류는 하나이며, 모든 종교인이 그 하나의 문(門)을 통해서 인류평화에 협동해야 할 것이다.

새천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타자배제가 아니라 나와 다른 타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더불어 살아가려는 관용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관용이 없으면 세계는 분쟁과 갈등의 도가니로 화하게 될 것이다.

관용은 윤리적 가치체계라기보다 생물학적 생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소화기관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외계의 이물질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로 받아들여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생물학자들은 이 관용을 연구하면서 훌륭한 철학자로 변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종교적인 마인드(mind)를 갖게 된다. "자기 속에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비자기(非自己)를 지녀야만 한다"는 점이다. 자기 속에 있는 비자기의 모형,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사랑이며, 유교의 인(仁)과 서(恕)이며, 불교의 자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는 타자를 인정하고 나와 다른 자와 공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콘비비알리티(conviviality) 그리고 상생의 원리를 갖지 않는 한, 오늘날과 같은 "아름다운 닻"이 되어 전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리즘과 밀레니엄리즘의 세속과 신성의 결합 또한 관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여 내부속에 외계를 교묘하게 보존하는 것, 그래서 외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면서 어느 지점에 경계를 만들지 않으면 작위와 나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 결국 소화기관의 면역계에는 생물이 외계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절묘한 장치인 '관용'이 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라 된다.

이 관용이 나의 종교와 이질적인 종교 간에서 일어나야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종교 안에 있는 비자기 체계의 종교의 작위와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독자적인 경계선을 항상 어디엔가 쳐두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될 때 기독교는 기독교의 목소리, 불교는 불교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가지면서도 다른 종교와 공존해 가는 '관용'의 세포를 증식해 갈 수가 있다.

천년화의 종교 최대의 가치시스템은 관용이며, 글로벌리즘의 혼잡문화를 평화로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파워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관용은 윤리적 가치체계라기보다 생물학적 생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소화기관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외계의 이물질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로 받아들여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생물학자들은 이 관용을 연구하면서 훌륭한 철학자로 변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종교적인 마인드(mind)를 갖게 된다. "자기 속에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비자기(非自己)를 지녀야만 한다"는 점이다. 자기 속에 있는 비자기의 모형,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사랑이며, 유교의 인(仁)과 서(恕)이며, 불교의 자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천년화의 종교 최대의 가치시스템은 관용이며, 글로벌리즘의 혼잡문화를 평화로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파워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관용은 윤리적 가치체계라기보다 생물학적 생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소화기관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외계의 이물질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로 받아들여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생물학자들은 이 관용을 연구하면서 훌륭한 철학자로 변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종교적인 마인드(mind)를 갖게 된다. "자기 속에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비자기(非自己)를 지녀야만 한다"는 점이다. 자기 속에 있는 비자기의 모형,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사랑이며, 유교의 인(仁)과 서(恕)이며, 불교의 자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천년화의 종교 최대의 가치시스템은 관용이며, 글로벌리즘의 혼잡문화를 평화로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파워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관용은 윤리적 가치체계라기보다 생물학적 생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소화기관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외계의 이물질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로 받아들여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생물학자들은 이 관용을 연구하면서 훌륭한 철학자로 변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종교적인 마인드(mind)를 갖게 된다. "자기 속에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비자기(非自己)를 지녀야만 한다"는 점이다. 자기 속에 있는 비자기의 모형,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사랑이며, 유교의 인(仁)과 서(恕)이며, 불교의 자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천년화의 종교 최대의 가치시스템은 관용이며, 글로벌리즘의 혼잡문화를 평화로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파워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관용은 윤리적 가치체계라기보다 생물학적 생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소화기관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외계의 이물질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로 받아들여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생물학자들은 이 관용을 연구하면서 훌륭한 철학자로 변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종교적인 마인드(mind)를 갖게 된다. "자기 속에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비자기(非自己)를 지녀야만 한다"는 점이다. 자기 속에 있는 비자기의 모형,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사랑이며, 유교의 인(仁)과 서(恕)이며, 불교의 자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천년화의 종교 최대의 가치시스템은 관용이며, 글로벌리즘의 혼잡문화를 평화로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파워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관용은 윤리적 가치체계라기보다 생물학적 생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소화기관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외계의 이물질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로 받아들여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새천년 종교계 과제' 세미나

새 천년을 위한 종교계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같은 물음에 답을 찾는 세미나가 24~25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회장 고신 조계종총무원장) 주최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각 종교대표자의 신도들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표된 이어령 새천년준비위원장의 기조강연과 '민족공동체의 미래와 종교' (이재정 성공회대학교 총장), '종교와 생명문화' (김용정 동국대 명예교수)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종교계의 과제를 찾아본다. <편집자 주>

자기속에 非自己 지니는 것이 종교

기조강연 이어령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

새 천년의 과제가 문명-문화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중심에 종교가 파급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세계구도와 그 운명은 문명-문화 즉 종교 파급이 충돌할 것인가, 융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종교지도자들에게는 "글로벌의 전쟁을 밀레니엄의 평화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이 21세기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더구나 두려운 것은 종교의 중심이 단순히 종교 내부나 그 지도자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광범위한 정치 경제의 세력과 얽힌 지구세력화로 전환한다는 문제이다.

문제를 단순화하면 글로벌리즘의 세속적 단일 시장의 공간과 밀레니엄리즘의 신성한 통합된 종교의 시간이 하나가 되며 바그너(Wagner)의 "제신들의 황혼"의 경우처럼 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유불선(儒佛仙) 삼도의 융합처럼 종교간 공생의 평화 상황이 실현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다.

새천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타자배제가 아니라 나와 다른 타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더불어 살아가려는 관용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관용이 없으면 세계는 분쟁과 갈등의 도가니로 화하게 될 것이다.

관용은 윤리적 가치체계라기보다 생물학적 생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소화기관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외계의 이물질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로 받아들여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생물학자들은 이 관용을 연구하면서 훌륭한 철학자로 변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종교적인 마인드(mind)를 갖게 된다. "자기 속에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비자기(非自己)를 지녀야만 한다"는 점이다. 자기 속에 있는 비자기의 모형,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사랑이며, 유교의 인(仁)과 서(恕)이며, 불교의 자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천년화의 종교 최대의 가치시스템은 관용이며, 글로벌리즘의 혼잡문화를 평화로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파워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관용은 윤리적 가치체계라기보다 생물학적 생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소화기관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외계의 이물질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로 받아들여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생물학자들은 이 관용을 연구하면서 훌륭한 철학자로 변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종교적인 마인드(mind)를 갖게 된다. "자기 속에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비자기(非自己)를 지녀야만 한다"는 점이다. 자기 속에 있는 비자기의 모형,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사랑이며, 유교의 인(仁)과 서(恕)이며, 불교의 자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천년화의 종교 최대의 가치시스템은 관용이며, 글로벌리즘의 혼잡문화를 평화로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파워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관용은 윤리적 가치체계라기보다 생물학적 생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소화기관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외계의 이물질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로 받아들여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생물학자들은 이 관용을 연구하면서 훌륭한 철학자로 변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종교적인 마인드(mind)를 갖게 된다. "자기 속에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비자기(非自己)를 지녀야만 한다"는 점이다. 자기 속에 있는 비자기의 모형,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사랑이며, 유교의 인(仁)과 서(恕)이며, 불교의 자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천년화의 종교 최대의 가치시스템은 관용이며, 글로벌리즘의 혼잡문화를 평화로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파워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관용은 윤리적 가치체계라기보다 생물학적 생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소화기관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외계의 이물질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로 받아들여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생물학자들은 이 관용을 연구하면서 훌륭한 철학자로 변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종교적인 마인드(mind)를 갖게 된다. "자기 속에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비자기(非自己)를 지녀야만 한다"는 점이다. 자기 속에 있는 비자기의 모형,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사랑이며, 유교의 인(仁)과 서(恕)이며, 불교의 자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천년화의 종교 최대의 가치시스템은 관용이며, 글로벌리즘의 혼잡문화를 평화로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파워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관용은 윤리적 가치체계라기보다 생물학적 생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소화기관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외계의 이물질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로 받아들여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생물학자들은 이 관용을 연구하면서 훌륭한 철학자로 변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종교적인 마인드(mind)를 갖게 된다. "자기 속에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비자기(非自己)를 지녀야만 한다"는 점이다. 자기 속에 있는 비자기의 모형,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사랑이며, 유교의 인(仁)과 서(恕)이며, 불교의 자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천년화의 종교 최대의 가치시스템은 관용이며, 글로벌리즘의 혼잡문화를 평화로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파워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관용은 윤리적 가치체계라기보다 생물학적 생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소화기관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외계의 이물질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로 받아들여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생물학자들은 이 관용을 연구하면서 훌륭한 철학자로 변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종교적인 마인드(mind)를 갖게 된다. "자기 속에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비자기(非自己)를 지녀야만 한다"는 점이다. 자기 속에 있는 비자기의 모형,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사랑이며, 유교의 인(仁)과 서(恕)이며, 불교의 자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천년화의 종교 최대의 가치시스템은 관용이며, 글로벌리즘의 혼잡문화를 평화로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파워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사람관계 중시 상생정신 회복

주제발표 이재정 (신부·성공회대학교 총장)

행복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와 연대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의 복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종교의 가치와 역할이 사회 전반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대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다수의 대중이 기업의 지배력 행사를 포괄한 다양한 권력행사의 장에 새로운 주체로서 참여 법과 제도의 구체적 개혁 등을 통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참여의 확대와 민주주의의 심화를 상승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 가족, 지역과 근린 생활권은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가족, 친족, 연고, 지역집단은 인간의 행복행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 단위이다. 가족집단의 재구조화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정책적 비전의 수립은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초석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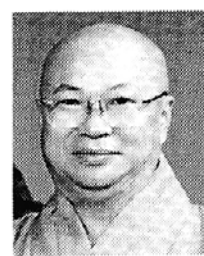
노동운동, 시민의 각성, 시민사회에 뿌리박은 정당 등 힘있는 시민사회만이 당면의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약육강식의 논리로부터 우리를 구제할 수 있는 안전관이다.

종교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교조적인 교리를 내세우거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종교의 울타리 안에서 평화를 누리려 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가 점차로 이러한 영역과 별개의 제3의 섹터에 의해 점점 더 좌우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바로 시민사회의 영역이다. 이 시민사회의 영역은 자발성과 도덕성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의 제반 문제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새 천년을 준비하면서 다시 종교의 역할 즉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는 화해와 상생의 역사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의 종교가 그 동안 철저하게 지켜 온 배타적이고 신비적 종교의 전통에서 벗어나 대립적 사회와 분단의 역사를 통합하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초초를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승선식 (2개월 50만원), 슬효소장액 (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 (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비운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민반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며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만수무갈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혜영 합장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래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승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초초 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따미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인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읽어서 꼭 읽고 인가!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여성중앙 99년 6월호에 실린 '크로스 건강법'은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이다. 크로스 건강법은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이다. 크로스 건강법은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이다.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심본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는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 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 655-2227
 (011) 808-8880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총복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경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법륜 합장